

특별재난지역 지원 선제적 추진

익산시, 지방세·상하수도요금 감면·납부유예·농기계수리 등 각종 지원혜택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원제도를 유관기관과 선제적으로 추진해 피해 주민들의 각종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익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요청해 호우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방세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항목이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농기보전부담금 면제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시청상황실에서 간접지원에 대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머리를 맞대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건강보험료는 재난발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재난등급에 따라 30~50% 경감되고, 체납 연체금에 대하여 6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농기보전부담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하여 신속·증축 및 이축 시 600제곱미터 이하 부지조성에 대한 농기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전기요금은 멸실된 건축물 1개월분 전액 면제, 파손 및 침수 건축물 1개월분 50% 경감, 전기요금 납기연장,

전기 재사용 신청시 고객시설부담금 면제 등이 지원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취사·난방용의 경우 전과주택 1만 2,400원, 반과·침수 주택 6,200원 1개월분 감면이 지원된다.

통신요금은 특별재난지역 선로 지역에서 재난등급 1 ~ 90등급 피해자의 무선통신 이용요금에 대하여 세대당 1회선 1개월간 최대 1만2,500원 감면되며, 예비군 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 본인이 거주하거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모든 간접지원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지원대상 확정정보에 따라 일괄 지원 또는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주민이 직접 마을 구석구석을 방역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방역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소는 보건소 방역기동반, 29개 읍면동 방역팀, 다ieroom일자리 방역팀을 운영해 시전역의 주요 방역 취약 지역 관리를 강화하며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예방에 집중한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보건소, 읍면동 및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활성화를 토대로 위생해충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민관협력 이원화 방역구축... 방역사각지대 최소화

익산시, 읍면동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발대식 개최

익산시가 민관협력 이원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해 방역사각지대 최소화해 나갔다.

시는 주·야간 취약지역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마을 지리와 취약지역을 잘 아는 읍면동 자율방역단이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골목 등을 방역해 촘촘한 방역안전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28일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3개 읍면동 자율방역

단원 70여명이 참석하여 올바른 방역 방법과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방역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읍면동 자율방역단은 (사)익산시새마을회, 익산의용소방대, 이·통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취회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경로당 등 방역취약지역을 동절기에는 모기 유충구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읍면동 자율방역단 구성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방역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소는 보건소 방역기동반, 29개 읍면동 방역팀, 다ieroom일자리 방역팀을 운영해 시전역의 주요 방역 취약 지역 관리를 강화하며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예방에 집중한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보건소, 읍면동 및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활성화를 토대로 위생해충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고교생 일본·베트남 탐방 성료

지난 25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공동이사장 이항근)이 추진한 2023년 글로벌 문화탐방이 참여 학생들의 활동성과 보고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글로벌문화탐방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역사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군산 내 고등학교 100명이 일본과 베트남을 무사히 다녀왔다.

지난 25일 청년회에서 실시한 활동보고회는 자기 주도적 탐방계획과 학생 간 협업을 위한 소그룹 모둠활동, 자유주제 탐방 등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했다. 참여학생과 인솔교사, 재단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그룹별 자율적으로 활동한 탐방내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과 영상으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탐방은 모든 대원들이 정해진 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8~9명의 소그룹이 탐방전에 사전모임을 통해 자유 활동주제

를 결정하고, 이동수단, 탐방장소, 탐방과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자율적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한 참가학생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스스로 참여한 자유주제 활동시간 덕분에 성취감과 책임감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글로벌문화탐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올 탐방은 기존 추천방식으로 이뤄졌던 참여자 선정방식으로 과감하게 학생 자기주도적 계획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참여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정헌율 시장, 다문화가족 소통행보 강화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 소통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의 주제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대표 및 관련 단체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회의 때 건의사항 검토 결과와 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공유, 수요자 입장에서 바리본 실효성 있는 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지원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정 시장은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을

경청하고 한 명의 의견도 놓치지 않으려 하는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여 다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다문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는 시장직속 논의의 기구로 5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관련 단체들이 모여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새단장

군산시가 시민들이 더 쉽고 편한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28일 모바일 중심의 인터넷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서서비스 요구에 대응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9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 적용으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본인이 소유한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추천도서 서비스'와 '대출이력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화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특히, 모바일 회원증으로 도서 대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본인확인을 통한



도서대출 회원가입과 대출 중인 도서 사전예약, 서점식 도서검색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스마트폰, 태블릿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해 이용자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직원 역량강화 교육

군산시가 지난 25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 △본예산 편성 주요일정,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무 등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국제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민생안정 지원, 인구 변화 대응, 복지·교육 재정 수요 등 지출증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재정을 기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전 부서에서는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농어민 소득제고를 위한 농수산 식품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민안전 및 사회적 약자지원 등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관련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력, 건전재정 운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신흥저수지 둘레길 개방시간 앞당겨

익산 도심 속 수변 산책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신흥저수지 둘레길이 새벽에 문을 연다.

시는 시민들에게 이른 시간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방시간을 앞당겨 28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따라 9월까지 개방시간을 기존 9시부터 오전 6시로 앞당겨 운영하며, 폐장은 오후 6시로 동일하다.

또 10월부터 3월까지의 일출 등 안전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오전 9시부터 8시로 한 시간 빨리 개방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번 오전 시간에 연장 운영을 통해 출근 전 산책이 어려웠던 직장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병두 상하수도사업단장은 "둘레길 산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3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25일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주관으로 군산 동산중학교 학생들과 2023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과 봉사활동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성장과 더불어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군산 청소년 관련기관 20여 곳에서 각 부스를 설치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졌다.

황진 자원봉사센터이사는 "4차 혁명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군산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의 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